

말하는 교회

성경말씀: 행4:13-20

지금 교회들이 방황하고 있다. 대형교회마다 문제가 터져 손가락질 받고 있다. 모든 교회의 문제 지금 우리도 교회를 하고 있다. 왜 하는가? 나 편하자고 하는가? 이것도 일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교회의 주된 임무는 무엇인가? ★★★

영성이라는 말, 영성이 무엇인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와 개인처럼 사는 것 ★★★
인간의 필요, 유일한 해결책 증언,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 개인 모두에게 해당된다.

마틴 로이드존스의 설교와 설교자, 1장 2장을 보면서 느낀 점, '말하는 교회'

인간의 필요

인간의 필요는 무엇일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질병 해결하는 것, 정의 사회 구현, 환경 문제 해결 다 중요하지만 이것이 본질이 아니다.

인간의 문제: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것

범법과 죄들로 죽은 존재(엡2:1),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래서 눈뜬 소경이다(고후4:3-4), 이 세상의 신 마귀에 의해 눈이 가려졌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나 있다(엡4:17).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서 어두움을 사랑한다(요3:19)

이 모든 것의 요약: 무지

교회가 할 일

재정 문제, 질병, 환경 문제, 편견, 공의가 없음, 불행, 비참함은 타락의 산물이지만 타락 자체가 아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은 이런 무지를 타파하는 것이다. ★★★

구원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일이다(딤후2:4).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 하나님과 화해하라(고후5:19-20).

그러므로 교회가 할 일은 이런 무지를 깨뜨리는 것이다.

그러려면 말을 해야 한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말을 하는 것은 고유한 책임이다. ★★★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앉은뱅이를 고침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을 선포함, 5,000명이나 믿음, 종교 지도자들이 근심함

이들에게 다시는 그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지 말라고 그들을 위협함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19-20절)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을 말해야 하는 책무가 교회(개인)에 주어졌다.

이것은 교회의 고유한 책무이다. 다른 기관은 이런 일을 못한다.

의술, 심리학, 공학, 예술, 법률가, 정치인: 모두 할 일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인간의 필요와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지 못한다.

목사와 교회가 할 일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교회 예배, 모임, 아이들 교육: 무엇이나 초점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주된 목적: 인간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이끄는 것

증상 완화는 나쁜 일은 아니지만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환자가 복통으로 앓는다: 진통제를 준다. 보기에 좋은 것 같지만 실은 병을 악화시킨다.

증상의 치료 또는 완화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것이다.

오히려 범죄 행위에 가깝다.

현대 교회들의 문제: 은사주의, 병 고친다. 사업이 잘 된다. 아이들 좋은 대학 간다.

록 음악으로 우울증 해결, 노이들 고독 해결, 보기에 다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문제 악화 심각한 병일 수록 속히 문제를 찾아내서 수술해야 한다.

인간의 문제는 바로 이런 종류의 심각한 문제이다.

마취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좋은 교육, TV, 인터넷, 좋은 먹거리, 좋은 차, 좋은 집

그러나 여전히 인간의 문제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동일하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 ★★★

그러므로 교회는 이것을 말해야 한다. ★★★

전문가가 되기 위해 많은 훈련을 받듯이 전문적으로 성경으로 통해 이 문제를 깊이 살펴보고 확신을 가지고 말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설교와 가르침이 가장 중요하다.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는 두 개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세상을 향해서는 말씀의 선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강조한다.

현대 교회의 문제: 설교가 줄어들고 있다. 60분 예배 중에 적어도 6-70%는 설교가 차지해야 한다.

지금은 광고와 간증과 특송이 더 긴 경우도 있다.

교회마다 커피숍을 연다. 대중과의 소통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사람은 커피로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변한다. 우리한 해결책이다.

세상의 것들은 변한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점에서 유행을 타지 않는다.

인간의 필요: 하나님과의 화목, 유일한 해결책: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가 하는 일

먼저 이 교회에 오면 구원 받아야 한다. 내가 구원 받아야 남을 변화시킬 수 있다.

책을 읽고 공부하라고 한다. 사는 터전에서 전도지, CD 등을 주며 접근해서 말하라고 한다.

기회가 주어지면 믿는 바를 말해야 한다. 10월 16일 전도

교회가 주된 임무를 행할 때는 변성하게 되어 있다: 다른 모든 일이 동시에 변성한다.

사회도 변한다. 16세기의 종교 개혁, 교회가 할 말을 하자 인류 사회에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차적인 일에 관심을 둘 때는 망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하는 사역, 전하는 사역'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여기에 교회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선교 공동체는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회중이 모인 것 자체가 세상을 향한 설교이다. 모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회중이 하나님 말씀의 대변인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포하는 그리스도께서 이 가운데 같이 계시기 때문이다.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 솔로몬의 종들이 섬기는 것을 보고는 정신을 잃었다.

왕상 10:4-10

교회가 바로 이런 장소가 되어야 한다.

로이드존스의 간증, 그가 남 웨일스에서 목회할 때: 어떤 여자, 영매, 강신술 모임에 가면 3기니를 받았다. 어느 날 몸이 아파서 그 모임에 참석하지 못함.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을 보고 가고 싶어 했다. 그 이후로 평생 동안 교회에 오게 되었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의 물음: 교회에 오니까 어떠했나?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어떤 능력이 느껴졌다. 강신술 모임에서도 느껴졌던 능력. 그런데 교회의 능력은 정결한 능력이었다.”

이런 능력은 개인의 삶에서 나오지 않는다.

회중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만 나오는 능력이다. ★★★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인간의 필요와 하나님의 해결책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을 때에 성령님이 함께하신다. 이것이 교회 사역의 핵심이다. ★★★

결론

인간의 필요를 아는가? 하나님의 해결책을 아는가?

교회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기관이다.

교회의 임무를 이해하였는가? 개인도 해야 한다.